

집담회



2019년 청년,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엔 노인?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노후,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
국민연금 제도로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제도를 물려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

2019. 10. 22.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주최 참여연대·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목차

프로그램	3
우리의 노후 지킴이 공적연금, 그리고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4
청년 당사자 발표	13
1. 신동은 직장가입자 당사자	13
2. 이우주 지역가입자 당사자	14
3.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직장가입자 당사자	16
4. 정초원 여성가입자 당사자	18
참고자료	20

프로그램

- 19:00 사회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19:10 발표 우리의 노후 지킴이 공적연금, 그리고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19:40 쉬는시간
- 20:00 청년당사자 발표
신동은 직장가입자 당사자
이우주 지역가입자 당사자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정초원 여성가입자 당사자
- 20:30 투표 과연 청년의 선택은!?

우리의 노후 지킴이 공적연금, 그리고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우리의 노후 지킴이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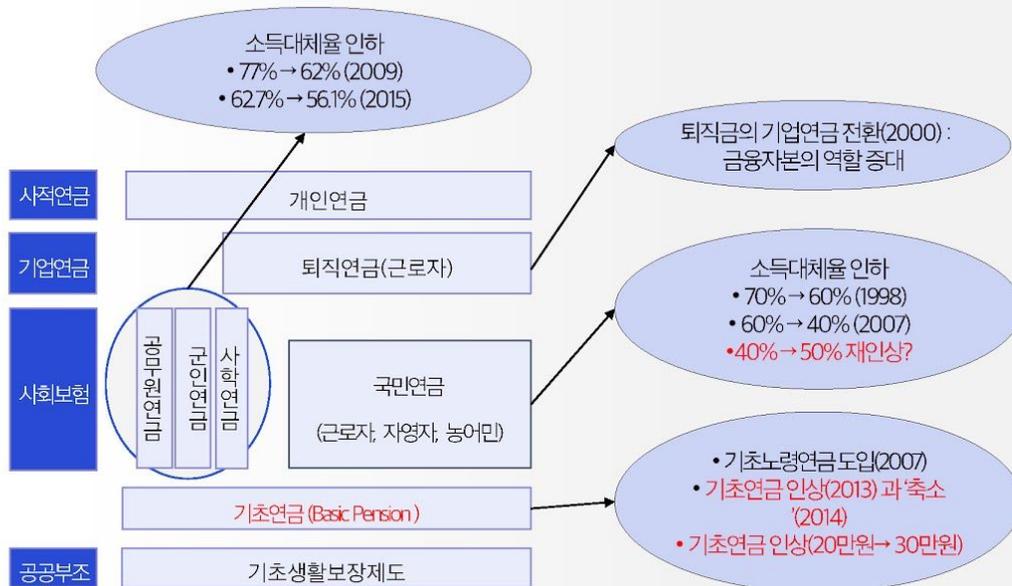
그리고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연금 제도

국민연금

- 전 국민 보편 연금
- 소득의 9%를 보험료로!
- 사업장 가입자는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현재) 44%, 40%로 떨어지는 중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25만원

2008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 40%

손실비율을 기초연금으로 보완

2008년 10만원 → 2028년 20만원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2008년 개혁안은 청년 밀두에게 손해!

원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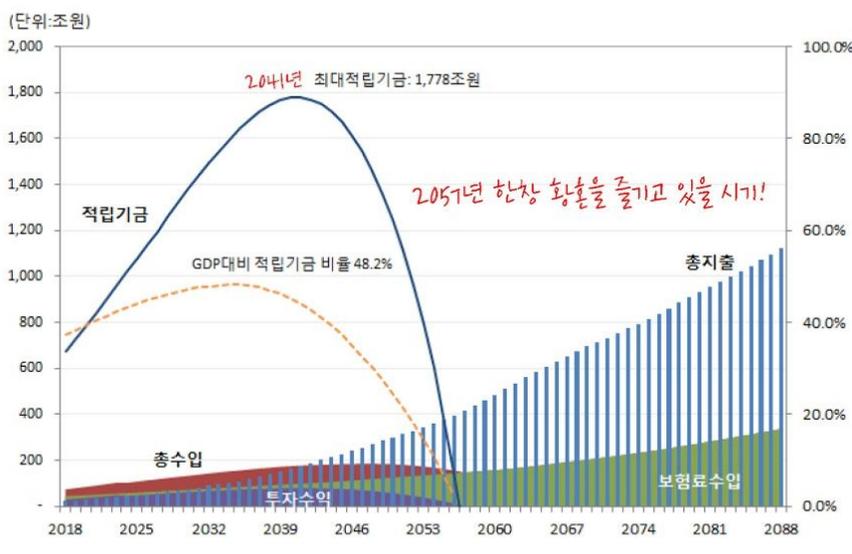


표면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나 실제론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 공적 연금 신뢰 저하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재정추계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 (65세 이상)

(단위 : 천명, %)

연도	수급자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8	3,074	2,675	17	382	41.6	36.2	0.2	5.2
2020	3,601	3,115	20	466	44.3	38.3	0.2	5.7
2025	5,230	4,496	32	702	49.8	42.8	0.3	6.7
2030	7,212	6,220	44	949	55.7	48.0	0.3	7.3
2035	9,534	8,314	54	1,166	62.8	54.8	0.4	7.7
2040	11,919	10,526	61	1,332	69.6	61.5	0.4	7.8
2045	13,806	12,287	62	1,457	75.9	67.6	0.3	8.0
2050	15,328	13,734	60	1,533	81.5	73.0	0.3	8.1
2060	16,484	15,008	47	1,428	88.9	81.0	0.3	7.7
2070	15,740	14,626	33	1,081	90.8	84.4	0.2	6.2
2080	13,890	13,159	24	707	90.5	85.7	0.2	4.6
자료: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공청회 자료집, 2018. 2088	12,374	11,829	21	525	89.7	85.7	0.1	3.8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청년이 마주한 국민연금 현실들

하나.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4.8%, 2030년 23.3%, 2040년 21.8%, 2050년 20.4%, 2060년 22.3%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3: 298),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자료집, 신규수급자 기준)

둘. 한국의 공적이전지출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너무 미미하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나의 노후,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한 일이다.

노인소득의 상대소득비율과 소득 구성: OECD 평균과 한국의 비교

구분	근로연령대 집단 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가처분 소득 비율	은퇴연령대 집단의 가처분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은퇴연령대 집단의 가처분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OECD 평균	83.45	81.99	67.56
한국	57.20	44.47	32.24

주: OECD 평균에서는 라트비아와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평균값임
자료: 추은선 외(2017),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표 1-20>

청년이 마주한 국민연금 현실들

셋. 기금이 고갈된다.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넷. 기초연금이 오르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은 인상되고 있음.

현재 35만원까지 오를 예정,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주장하는 정당도 있음.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

가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장예의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를

공적이전지출을 늘리려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 공적연금을 탄탄히!

1장 우리의 노후지킴이 공적연금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기금고갈되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NO!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어요.

2050년이 되면 수급자 중 가입자 비율이 80% 이상!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기초연금을 믿고 노후대비를 하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 시스템!

기초연금은 그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30만원을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어요!

2장 연금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

연금특위 논의 과정

- 2018. 10월 2차례 준비회의를 통해 안건 및 특위 구성 논의
 - (구성) 위원장, 노동(민주노동, 한국노동), 경영(경총, 대한상의), 비사업장(연금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은퇴자협회, 소상공인연합, 청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공익, 정부(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 2018.10.30.~2019.4.26. 17차례 전체회의 진행(격주 회 또는 주회). 워크숍, 간사단회의, 실무협의체 등 진행
 - (논의내용) 제4차 재정계산 보고, 정부안(중합운영계획), 공적연금의 역할수준(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의 최저수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기초연금 내실화,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제고 방안 등 논의
 - 2019. 4월 중순부터 공익위원 검토안 중심으로 논의
- 4월말 특위 기간 종료 전후에 특위 연장을 위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탄력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맞물려 본위원회 개최 불가

연금특위 논의 과정

- 이후 3개월여 동안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는 중단되었고 노동·시민단체의 논의재개 요청에 따라 복지부 주도로 간담회 개최(6.7., 7.26.)
- 8월 한 달 간 2기 연금특위를 재개하여 합의 및 기존 논의를 정리키로 함
 - 8.2.~8.30. 총 5차례의 전체회의라 4차례의 간사단회의 진행
 - (논의내용) 핵심쟁점인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쟁은 합의 여부가 중심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예산의 수용 가능성이 논의되었음

연금특위 논의 결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다수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도록 하며,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로 인상한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 - 권고문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부터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1.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지속추진하며,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1-2.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한다.
- 1-3.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노동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사전예방조치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

국민신뢰제고

2.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단, 연금보험료·급여액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유지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

기초연금 내실화

- 3-1.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3-2.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3-3.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금특위 논의 결과

기타

- 4-1.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문제로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 4-2. 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4-3.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반드시 마련한다.
- 4-4.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4-5.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한다.

청년 당사자 발표

1. 신동은 직장가입자 당사자

미취업상태인 청년이 154만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운 좋게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일했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서는 항상 쉽지 않았다. 그나마 나는 나은 상황일 수 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30을 앞두고도 아예 일을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내는 안에 찬성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다.

atm수수료가 아까워 계좌이체를 고민하는 나에게 보험료율 인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공공은 그래도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할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 미래는 나 혼자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함이 연속이고, 특히 비혼 1인가구인 채로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나에게 공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시스템인 국민연금은 매력적인 정책이다. 내가 아직 고용되어 일 할 수 있을 때 적립하는 기금으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연대의 장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누구보다 지지하는 마음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긴 하다. 나는 7년간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3군데의 직장을 거쳤다.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일하기도 했다. 회사1, 회사2, 서울시, 회사3.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을 보면 2년에는 한번씩 적이 바뀌었다.

겨우 7년 일했는데 화려한 가입이력을 보면서 나만 그런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많아지면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내 진로 선택지에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있다. 당장 내년에도 내가 보험료를 낼 만큼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는 상황일지 예측할 수 없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받으려면 40년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나를 포함하여 40년 가입이 어려운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노후를 고민해야 할까?

2. 이우주 지역가입자 당사자

경기침체 및 취업난에 따라 창업하는 청년들과 비정규노동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사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현재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업(사업주)가 없기에 본인이 연금보험료 온전히 내야 하는 부담감과 직접 가입 및 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 경우 커지는 납부에 대한 불안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실제로 사업장 가입자의 비해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많이 생각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 6월 평균소득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34세 청년층이 84만3,000여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의 75%를 차지했다.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 정상적 연금수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지만 농어민이 아닌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창업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 경우 재정적 우선순위에서 노후준비인 국민연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노후 필수 준비인 국민연금의 가입 유도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경우 사업장과 위촉기간 내에서라도 사업자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격차 구조로 인하여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 노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에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직장가입자 당사자

일반 청년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떠올려 봤음. 대부분의 청년은 “관심 없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당장 내일 받아야 하는 실업 급여나 오늘 못 받은 월급 체납 같은 것에 청년이 열을 내며 이야기하는 건 들어봤어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핏대 높이며 논쟁하는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친구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물어보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말까지 돌아왔다. 우스개로 한 말이겠지만 청년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대해 청년을 타박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극한의 경쟁 체계 속에서 공동체나 국가의 안전망 없이 개인으로 본인의 안정을 위해 싸워온 세대임. 공동체의 지원체계나 보장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에 대한 신뢰도 적다. 이런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도 없이 무조건 “40년 후에 돌려받을 테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내라”라고 하고 있다.

나도 직장 가입자 중 한 명인데, 국민연금에 대해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단어만 기사로 만나다가 직장인이 되니 급여명세서의 한 명목으로 만났다. 실제로 만나니까 안 그래도 작은 월급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세금이 아닌데 원천징수라는 말이 좀 안 맞기도 하네요)이기 때문에 별 반발 없이 넘어가지, 이것보다 더 적은 돈을 불안정하게 받으며 생활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눈뜨고 코 베이는 돈으로도 비칠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2030세대의 소비행태를 “소확행” “YOLO”라는 단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눈앞의 기쁨만을 찾는다는 단어이지만, 돌려 말하면 확실한 안정과 행복에 확실한 투자를 하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40년 후에나 돌려받는, 그나마도 ‘기금 고갈’ 논쟁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 거란 불확실성까지 있는 돈에 대해 논의하자면 청년들은 “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본인의 일로 인식하고 이 이슈의 당사자로서 함께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모두가 기금을 함께 만들고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일정 정도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지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논의보다 앞서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필요성과 현재 제도 설계의 원리, 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쟁점에 놓여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고, 청년이 원하는 연금개혁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초원 여성가입자 당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측 패널로 발표하게 된 정초원입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집담회 이후 또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연금특위 연장을 앞두고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중요한 노후소득기구의 개혁과정에 있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력단절의 위험으로 제대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금특위의 논의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비용 부담을 꺼려했고, 정부는 그들의 반대를 극복할 의지가 없어보이는, 권고안 도출에 만족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계속 내려가고 있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담긴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크레딧의 확대와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국민연금에 포괄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특위 결과는 접어두고,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온 30년이라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저와 같은 30대 여성들의 상당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도 가족들을 돌보느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노후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수치로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성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85개월로, 남성 가입기간인 129개월의 약 65.8%에 불과합니다. 평균 급여액 역시 남성은 45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27만원입니다¹⁾.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성별 임금 격차,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노후의 격차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적연금을 신뢰하는 여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4050세대 중 남성의 71.7%가 노후 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을 꼽은 반면, 여성은 57.4%에 그쳤다고 합니다²⁾.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노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 생애주기 과정에서 겪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가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실로 인한 노후 소득 삭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적 과업으로 인해 경력이 불안정한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을 비롯해 아직도 국민연금의 안전망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포괄하고, 낮은 급여율을 높여 노후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권고안에 그친 결과문이지만, 이 결과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움직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2/14), 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2) 보험개발원, 2019,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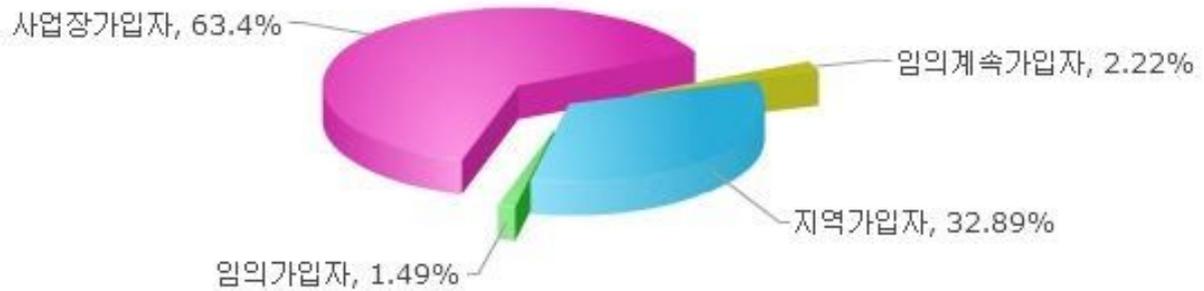
참고자료

1.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안문**
 - 제안단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2019년 8월 30일
3.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2019년 8월 30일
4.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참여연대 정책자료
5. **국민연금 공표통계 요약 2019년 6월 기준**

참고자료5 국민연금 공표통계 요약 2019년 6월 기준

● 가입자 현황

● 가입자 현황 - 2019년 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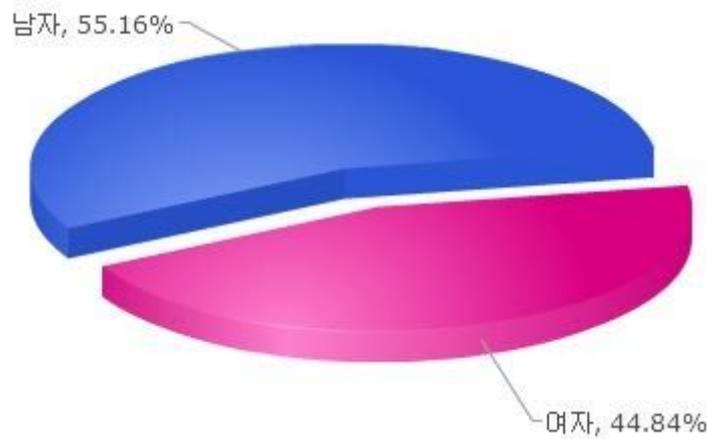
● 가입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가입자 현황 - 연도별 현황 / 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 6월말
계	20,744,780	21,125,135	21,568,354	21,832,524	21,824,172	22,313,869	22,125,945
사업장가입자	11,935,759	12,309,856	12,805,852	13,192,436	13,459,240	13,817,963	14,028,375
지역가입자	8,514,434	8,444,710	8,302,809	8,060,199	7,691,917	7,694,885	7,276,505
임의가입자	177,569	202,536	240,582	296,757	327,723	330,422	329,634
임의계속가입자	117,018	168,033	219,111	283,132	345,292	470,599	491,431

● 가입자 현황 - 성별 현황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22,125,945 (100%)	14,028,375	7,276,505	329,634	491,431
남자	12,203,892 (55.2%)	8,167,417	3,814,772	49,756	171,947
여자	9,922,053 (44.8%)	5,860,958	3,461,733	279,878	319,484

● 가입자 현황 - 연령별 현황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계	22,125,945 (100%)	14,028,375	7,276,505	329,634	491,431
30세미만	3,991,952 (18.0%)	2,556,321	1,425,366	10,265	-
30~39세	5,250,516 (23.7%)	3,804,441	1,414,030	32,045	-
40~49세	6,053,990 (27.4%)	4,120,975	1,830,094	102,921	-
50~59세	6,338,052 (28.6%)	3,546,638	2,607,011	184,403	-
60세이상	491,435 (2.2%)	-	4	-	491,431

● 급여지급 현황

● 급여지급 현황 -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 6월말 (누계)
계	3,440,693	3,586,805	3,832,188	4,135,292	4,475,143	4,596,690	4,733,586
노령연금	2,840,660	2,947,422	3,151,349	3,412,350	3,706,516	3,778,824	3,897,963 (82.3%)
장애연금	75,041	75,387	75,688	75,497	75,486	75,734	74,009 (1.6%)
유족연금	524,992	563,996	605,151	647,445	693,141	742,132	761,614 (16.1%)

● 급여지급 현황 - 금액별 현황(2019년 6월말)

구분(만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0~20 만원미만	858,908	48	168,491
20~40 만원미만	1,587,753	30,649	484,089
40~60 만원미만	674,124	29,924	80,176
60~80 만원미만	312,750	7,422	21,336
80~100 만원미만	196,120	1,967	2,557
100 만원이상	237,446	815	26